

육군훈련소에서의 마지막 단추

육군훈련소에서 청년들은 익숙한 것을 잠시 뒤로한 채 짧은 머리를 하고 불편한 전투화를 신은 훈련병이 돼 군인으로서 자세를 익히고, 능률한 전투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훈련병뿐만이 아니다. 교관인 훈련부사관도 함께 발전한다.

육군훈련소 소대장(교관)으로서 훈련병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훈련병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 자격은 단박에 주어지지 않았다.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낸 덕분에 두 번의 도전 끝에 최우수 성적으로 교관이라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다.

교관으로서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하루를 시작한다. 체력단련, 제식, 개인화기, 핵·화생방, 수류탄, 전투부상자치처, 각개전투 등 7개 훈련을 가르친 뒤 늦은 밤 퇴근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훈련병들이 먹고 입고 자는 순간,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훈련병들의 부모가 된 것 같다.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지도하라'라는 마음이 통한 것인지 훈련병들의 눈빛·목소리·걸음걸이



전 정 호 상사
육군훈련소 26교육연대

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이 느껴진다. 훈련병들의 성장과 변화가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종일 신은 전투화 때문에 발톱이 썩기도 했지만, 이런 고통은 외려 영광스러운 징조 같았고 사명감이 더욱 커져 갔다. 매 기수 남긴 일기에 그때 경험과 생각이 생생히 담겨 있다. 그 기록들은 새로운 기수를 맞는 나를 성장시키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육군훈련소 인권서포터즈 활동도 훈련병들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경험이 되고 있다. 이전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서 더 나은 교육훈련이 시작됨을 깨달았다.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실천한 노력이 모여 훈련병에게 감동을 주는 훈련이 됐고, 덕분에 '훈련

병이 뽑은 최우수 소대장' '교육사 우수 교관' '올해의 훈련부사관' 등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훈련병들의 변화된 모습과 칭찬 한마디에 양질의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게 된다. 특히 훈련병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법을 모색 중이다. 생각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성숙해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훈련병과 교관은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시간이 흘러 육군훈련소 교관으로서 마지막 기수를 맞게 됐다. 교관이 된 첫날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모두가 잠든 새벽 출근길에 스스로 다짐하며 전투화 끈을 맨다.

오늘도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부사관들은 한층 성숙한 모습을 갖춘 전투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육군훈련소에서의 시간은 나를 더욱 성장시켰고, 훈련병들과 함께한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단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다 똑같은 군 생활 나는 이렇게 보냈다



최 진 호 병장
육군11기동사단 옹포여단

전역까지 채 100일이 남지 않았다. 부모님과 눈물로 이별한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병장이 된 지금, 누구보다 성실하고 자랑스럽게 군 생활을 했다고 자부한다. 후임들에게만 들려주던 소소한 군 생활 팁을 공개한다.

우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누구나 초반엔 걱정이 많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사범대학에 다니던 내가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인 포병의 사격지휘병 임무를 수행 중이다. 밤늦게까지 이뤄지는 전방야 훈련, 7박8일 흑한기 워게임, 실제 포를 쏘는 포탄사격 등 모든 훈련이 힘들었지만 사회에선 돈을 주고도 하지 못할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자신의 관심 분야와 장점을 살리자. 사범대학에서 교육지식을 배워서인지 군인교육의 한 분야인 '정신전력'에 자연스레 관심이 갔다. 교육 때마다 열심히 참여한 덕에 이병 때부터 집중정신전력교육 우수자로 선정돼 대대장 표창장과 함께 포상휴가를 받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주관한 '2024 정신전력 강화 공모전'에 참가했다. 그 결과 최우수상에 선정돼 국방부장관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세 번째, 성실하게 복무하자.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봉급을 받고 일한다. 열심히 하는 자에겐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기 마련이다. 군인에게 보상이란 휴가나 포상뿐만이 아니다. 주변 간부·병사들에게 받는 좋은 이미지도 있다. 나는 주특기인 사격지휘병에 더해 포대상담병과 군중병 임무도 맡아 처리했고, 6개월간 분대장 임무까지 완료하며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다. 진급 평가를 성실하게 준비한 것도 있지만 좋은 이미지가 더해져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조기진급을 했고 사단 모범용사 등의 여러 포상휴가, 약 20일의 위로휴가를 받으며 뿌듯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비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자. 학교 생활과 여러 활동으로 정신없이 지냈던 나는 오히려 입대하고 여유가 많이 생겼다. 학창 시절 이후 멀어졌던 독서도 어느덧 50권을 채웠고, 대학교 복학을 위해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훈련병 때 보급품으로 받은 소중한 병영일기, 일명 '소나기'를 병장이 된 지금도 꾸준히 작성하면서 복무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그에 맞춰 시간을 헛되지 않게 썼다.

모두가 동일하게 보내는 복무기간을 그저 의미 없이 흘려보낼지, 스스로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지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미래 전장의 핵심, AI 드론의 가능성과 도전

KAIST 을지연구소에서 주관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

미래 전장에서 전술기를 담당하는 드론(Drone·무인비행물체)은 선택이 아닌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AI를 접목한 자율드론 비행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드론은 단순한 정찰 및 공격무기를 넘어 새로운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을 구축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은 새로운 도전과 전환점을 제공해 줬다. 그 소중한 시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YOLO V5(You Only Look Once·객체탐지모델)를 활용해 드론이 인원과 장비(무기)를 인식·학습하고 군사적 타격을 감행하는 모의실험을 했다. 드론은 공격 명령을 받은 뒤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메라를 통해 목표물을 신속·정확하게 식별했다. 평균 정밀도 90%라는 놀라운 성과



김 세 진 군주무관
육군53보병사단
교육훈련참모처

를 봤을 때 미래 전장에서 드론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실제 실험에서 기체 떨림 현상과 호버링 유지, 고속이동 중 안정성은 다소 미흡해 앞으로도 하드웨어(HW)·SW의 다각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AI를 접목한 드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율비행과 목표 탐지 △군집비행(SWARM) △실시간 데이터 분석·적용 등 군사적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인식기술의 경우 딥러닝 방식의 알고리즘 발전과 함께 정밀도가 향상되고 있어 타겟 탐지와 야간작전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AI로 실시간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임무를 재구성하며 군집드론을 활용해 전투 효율성 제고와 적의 방어시스템 돌파도 가능하다. 다중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우리의 핵심 전투자산으로 발전해 미래 전장을 선도할 그날을 상상하니 벌써 설렌다.

'AI·SW 프로젝트' 교육은 많은 교훈을 줬고, 우리 군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AI를 접목한 드론기술은 적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투원의 생존성을 높이는 강력한 전략 무기이자 효과적인 전투수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과 전문기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세계 속의 군사강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 역시 'AI·SW 프로젝트'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m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매월 말 응모한 휴대전화 번호로 차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35, (일반)02-2079-3735